

돼지 질병 해결어이

국제 경쟁력은 요원하다



김 태 주 대표/수의사
(한국 애니멀 클리닉 & 컨설팅)

꽤 오래전,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은 ‘춥고 배고픈 때’를 경험했을 것이다. 축산을 하는 사람들 중, 특히 양돈을 하는 분들은 요즘처럼 춥고 배고픈 때가 또 있을까 싶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오르막 길이 있으면 내리막 길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양돈에 있어서는 순전히 자연의 섭리가 아닌, 우리 인간들의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이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실천하지 못한단 말인가?

국민소득 1만달러에다 해외 여행 자율화, 또 수입개방….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적정 두수가 얼마니, 사육두수를 제한하자는 것도 모순이고, 남이 못하다 보니 돈이 벌려졌던 것이었는데, 내가 잘해서 돈을 벌은 것으로 착각하고 용자신

청에다, 증설 등… 용자도 정녕 빛일진데, 누가 그 이자를 갚아 주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젠 제발 남이 잘못해서 벌려지는 큰 돈을 찾지 말고, 노동의 댓가를 얻는다는 심정으로, 적지만 차라리 꾸준한 인건비를 벌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돈가가 하락하면 어김없이 찾아 오는 것 또한 돼지 질병이다. 그동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투자를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도로아미타불이 됨은 물론,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헛고생을 또 해야 되니 그야말로 이중고(二重苦)가 되는 셈이다. 돼지 질병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려면 정말 요원한 일이다. 생산원가 또한 높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이 또한 이중고가 아니겠는가?

생산원가 부문에서도 원료 등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알면서도 잘 안되는 것이 질병 부분이다.

그렇다면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있어야 하고, 그 병원체는 동물에 침입하여 증식을 하고, 감염을 일으키며 발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특정 병원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병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체의 숫자가 많거나, 그 병원체의 독성이 강하거나, 동물의 면역력, 저항성이 약할 경우에만 발병되는 것이다.

즉 똑같은 수의 병원체라도 그 동물의 여건에 따라서 발병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병원이 되는 병원체를 없애야 되겠고 또 전염경로를 잘 차단해야 하며, 숙주인 돼지의 저항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방 차원에서 시작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첫째, 철저한 소독을 해야 되겠다.

① 소독제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독제의 종류에 따라 병원체의 감수성 차이가 크다. 즉, 특정 바이러스에 강한 제제가 있는 반면 세균 외의 바이러스엔 별 효과가 없는 소독제도 있다.

② 소독제의 희석 및 방법
희석 농도에 따라 소독제의 효과 차이가 크다. 또한 충분한 양으로 골고루 흠뻑 소독해야 한다.

③ 소독 장소의 선택
상투적인 돈사 내부 뿐만 아닌, 매몰장 또는 돈분 처리장, 특히 모든 운반구(사람포함)가 통과하는 정문에서부터 중앙 통로 소독을 빠뜨려선 안된다.

④ 음수 소독
원료 수(水)가 아무리 좋더라도 니플을 통과한 물은 이끼 또는 곰팡이가 서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내의 유해균 증식 억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다만 빈번한 음수소독은 정상세균까지도 죽일 수 있다.

둘째, 적절한 백신을 빠뜨리지 말고 접종해야 한다.

농장마다 이행항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백신 프로그램 또한 항체가 확인 후 적절한 시기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셋째, 항균제의 남용 또는 오용을 줄여야 한다.

일단 그 농장내 사용항생제를 단일화시켜야 한다. 같은 계열의 항균제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명이 틀리니까 같은 감수성이 있는 질병인데도 다른 약제를 무차별 사용하여 어느 농장이든 약제의 내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감수성 검사후의 약제 선택은 물론이고 농장내 사용하는 항생제의 종류를 줄여서 1년 또는 같은 증상에 효과가 있을 때까지 꾸준히 사용하다가 전혀 다른 계열로 바꾼다면 내성균주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방차원에서 차단방역을 하다보면 질병의 종류도 줄어들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 원가도 절감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질병의 숫자가 적었을 때만이 박멸 정책도 쉽게 세울 수 있고, 양돈 후진국으로서의 오명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일단 양돈 선진국으로 자부할 때 못 양돈 수출국들의 눈독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